



경제통통

FOCUS

- 2017년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ZOOM IN

- 330만 명 즐기고 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굿바이!
- 매일 첫 현금손님 매출 모아 지역사회에 환원...소상공인 15명 표창

HOT ISSUE

- 52개 기업 참여하는 글로벌기업채용박람회, 이력서 가지고 오세요
- 투자·일자리창출·사회공헌 앞장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개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 01

2017년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포드재단이 주도하는 ‘도시 내 포용적 성장 회의(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 이하 ‘포용적 성장 캠페인’)’의 2017년 개최도시로 확정되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서울시는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와 함께 ‘도시 내 포용적 성장 캠페인’ 창립에 참여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시간 2016년 11월 21일(월) 열린 포용적 성장 캠페인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하여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3차 회의의 서울 개최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시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를 위한 노력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궁극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고 판단해, 내년 개최를 통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도시에 ‘서울형 포용적성장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OECD의 포용적 성장 캠페인은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파리액션플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도시의 현안에 맞는 포용적 성장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플랫폼을 구상할 뿐 아니라 파리액션플랜의 다음 단계를 그리는 서울선언문을 챔피언시장단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ICLEI, WEGO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회장도시를 ‘서울시가 역임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도시에게 서울의 경제민주화 정책 등의 우수사례를 OECD가 각 회원도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수 정책사례와 문제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은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기업과 속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불균형과 불평등의 성장통을 겪었다.”며,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ZOOM IN | 01

330만 명 즐기고 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굿바이!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7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번 주에 문을 닫는다. 2016년 야시장에는 102대의 푸드트럭, 200여 팀의 핸드메이드 작가, 240여 공연팀, 그리고 약 330여만 명(1일 평균 7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서울의 밤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2015년 10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의 첫 개장 이후 올해 4곳(여의도한강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목동운동장, 청계광장)으로 야시장 장소를 확대하여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운영해왔다. 한편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10월 27일(목)~30일(일) 4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 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서울시의 대표 사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시는 “7개월간 330여만 명의 시민이 함께 즐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본격적으로 푸드트럭이 도입된 실험 무대이자, 핸드메이드 작가와 버스킹 공연팀의 경험 무대가 되었다.”며, “다시 찾고 싶은 곳, 함께 가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더욱 매력 넘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으로 내년에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ZOOM IN | 02

매일 첫 현금손님 매출 모아 지역사회에 환원...소상공인 15명 표창

매일 첫 현금손님은 금액에 관계없이 '마수걸이'라고 이름 붙인 통장에 적립해 연간 600여만 원을 경로당과 자율방범대 등에 후원해온 이연우씨,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 문화행사 등 지역 행사에 사회와 심사로 봉사해 온 김영석씨 등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해 온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15명이 11월 15일(화)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15명에 시장표창 및 인증점포 현판 수여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소상공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 시민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8.22~9.26)에 대한 선발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총 15명을 선발했다. 자치구와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가 공헌활동 내용과 활동의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매일 첫 현금 매출 모아 경로당 후원, 레크레이션 경험 살려 지역행사 사회 재능기부

서울시는 시상식에서 15명의 수상자들에게 서울시장 표창장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을 수여하여, 점포와 연계한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 실천하는 나눔과 봉사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수상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점포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올해와 지난해 선발된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봉사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서로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봉사에 협업 기회를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어 우리 지역, 우리 동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공헌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2개 기업 참여하는 글로벌기업채용박람회, 이력서 가지고 오세요

청년 구직자들과 외국기업을 위한 글로벌 인력 채용의 장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1월 11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1관에서 「2016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HSBC銀 등 20개 외국계 금융사, 지멘스 등 32개 외국인투자기업 참가

이번 박람회는 서울에서 이뤄지는 채용박람회 중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박람회로, 외국계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채용정보와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외국계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외국기업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외국기업들이 우수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해로 4년째 매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52개 기업 인사담당자 현장 면접 실시 직접 기업 정보 제공, 면접지원 취업컨설팅

박람회는 ▲HSBC은행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총 20개의 외국계 금융사를 비롯해 ▲지멘스(주) ▲볼보그룹코리아 ▲자트코 코리아 등 32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했으며, 참여기업부스에서는 각 기업의 인사(HR)담당자가 상주하면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채용 정보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컨설팅과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이외에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취업에 필요한 ▲국문·영문 이력서 클리닉 ▲면접 이미지 컨설팅 ▲원어민과의 (영·중·일)모의면접 컨설팅 ▲면접코디 및 메이크업 등도 제공되었다.

시는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꿈을 펼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참가 외국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T ISSUE | 02

투자·일자리창출·사회공헌 앞장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개최

서울시는 활발한 투자를 통해 서울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을 표창하고,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6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를 11월 7일(월)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제 발전에 동참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에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의 3개 부문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도 함께 진행되었다.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으로
서울경제 기여한
우수기업 3개사 표창**

먼저,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1년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190억 원을 투자해 서울의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문화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그레벡코리아가 선정되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선정되었다. 최근 5년간 약 10억 원의 증액투자는 물론 약 60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 층과 여성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공헌 부문에서는 노숙자와 탈북자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SF)가 선정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서울의 투자환경 등 외국기업이 해외 투자 시 고려하는 중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7차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가 진행되었다.

*FIAC :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외국인투자자문회의)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투자변화에 대해서는 '증가' 및 '유지'라는 응답이 94.2%로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향후 3년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9.4%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5.7%)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투자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평균 3.41(5점 만점)점으로 나타났고, 과반수의 기업이 지속 투자 의향을 보여주었으나, 높은 인건비, 임대료 및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총 106개사가 응답한 결과 분석)

시는 “국내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기업의 투자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라며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